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5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에 대한 의료 보호를 역행하는 연방 정부의 제안에 뉴욕이 반대한다고 발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약화하고 차별금지 보호를 준수해야 하는 보험 유형을 제한할 때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제안에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이 반대 의견 제출

뉴욕주 보건부(NYS Department of Health), 발달 장애인 사무국(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도 이번 주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에 대한 의료 보호를 역행하는 연방 정부의 제안에 대해 다기관적 반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은 연방 정부에 미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제안을 폐기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은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를 위한 차별 보호를 약화하고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을 준수해야 하는 보험 유형을 제한합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발달 장애인 사무국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도 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의료와 성소수자 지역사회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뉴욕은 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워싱턴의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이 보험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즉각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역행하는 제안은 우리의 가치와 모순되며 중단되어야 합니다. 뉴욕주의 최종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해로운 규정이 뉴욕의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의 의료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별 표현 차별 금지법(Gender Expression Non-Discrimination Act, GENDA) 통과, 전환 치료 금지,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패닉 방어 금지 등 성소수자(LGBTQ) 지역사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서 미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전을 역행시키려는 연방 정부의 위협에 맞서 싸우며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성소수자(LGBTQ) 권리 운동의 발상지로서, 우리는 백악관(White House)의 차별적인 정책에 반대하고 미국의 성전환자 및 성별 비순응자들을 계속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부(DFS) 감독관인 Linda A. Lacewell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시민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며, 이 중요한 보호를 없애는 것은 차별과 같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역사적으로 차별을 겪은 이들을 지원하며 연방 정부도 동일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국(DHR) 커미셔너 Angela Fernand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타고난 성별과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광범위한 차별과 사회적 소외에 취약합니다. 의료 접근성의 차이는 감소시켜야 하며, 증가시켜서는 안 됩니다. 뉴욕주 인권국(NYSDHR)은 공공시설의 차별을 없앨 의무가 있으며 성 정체성 또는 표현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아동 및 가정 서비스국(OCFS) 커미셔너 Sheila J. Poo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생식 건강 및 선택에 기반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거절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뉴욕주 뿐 아니라 미국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차별적인 공격은 모순적이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제안한 이 조치는 우리의 성과 대부분을 뒤엎으려는 시도입니다.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 차별을 금하는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이 규정은 성전환자 및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허용하고 우리가 무너뜨리려 애쓴 의료 장벽을 재건할 것입니다."

발달 장애인 사무국(OPWDD) 커미셔너인 Theodore Kastner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 더해지면 접근 가능한 의료에 많이 의존하는 이미 취약한 인구가 더 심한 불평등을 겪게 됩니다."

정신보건국(OMH)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환자와 성소수자(LGBTQ)들은 모든 뉴욕 주민과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전환자와 성소수자(LGBTQ)들은 괴롭힘, 차별, 거절의 경험으로 우울증, 자살 충동 및 기타 정신 건강 문제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의료 차별과 차이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9년 6월 14일,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건강보험 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서 성 정체성과 성 고정관념 기반 보호법을 포함해 성을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보호법을 명시하는 연방 규제를 폐지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성 정체성이나 표현을 기반으로 한 차별은 뉴욕주 인권법(Human Rights Law) 아래에 고용 및 허가, 공공시설(의료인 포함), 주택 공급, 교육, 신용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뉴욕주의 법이 연방 정부가 제안한 변경사항으로부터 보호할 것이지만, 변경사항이 시행된다면 보험회사 다수가 차별없는 정책을 역행하려 할 것이기에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추가적인 규제 부담을 질 것입니다. 또한 규정안은 의료인과 수혜자 모두에게 혼란을 일으켜 의료 산업에 악영향을 주며 의료의 접근성과 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DFS)는 오늘, 해당 규정안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 성차별의 정의에서 성 정체성 및 성 고정관념을 제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받은 개인에 대한 보호 범위를 감소시킴.
- 메디케어 메디icaid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가 감독하는 다수의 기타 조항에서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추가적인 차별 없는 보호를 제거할 것을 제안함
- 차별에 대한 고시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을 가진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을 감소시키며,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과 기타 심각한 질병이 있는 이들을 차별하고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줄임.

앞서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가 발행한 회람장이 발행인들에게 권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인들은 성별 불쾌감에 대해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를 보장하며, 성적 지향이나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불임 치료를 보장하며,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예방을 위한 노출 전 위험 감소 요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을 보장해야 하고, 서비스를 받는 일반적인 성별과 개인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뉴욕주 인권국(NYSDHR)은 의료에 만연한 성 정체성 기반 차별에 대응하여 [뉴욕 주민들이 병원의 성 정체성 차별로부터 어떻게 보호받는지 강조하는 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지침은 다음 사항을 명시합니다: 성 정체성이나 표현을 이유로 병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 성전환자를 환영하지 않거나 불쾌함을 표시하는 것, 성전환자의 법적 이름 사용을 거부하는 것, 성전환자가 요청한 대명사로 지칭하지 않는 것, 개인의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화장실 또는 기타 시설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 성전환자가 차별에 대해 불평했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은 뉴욕주 아동 복지, 가출 및 노숙 청소년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규제합니다. 성소수자(LGBTQ) 청소년들은 사회와 가족의 거부로 아동 복지와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보호소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들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와 약물 남용으로 고통받고, 성교를 강요당하며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거나 몸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대다수 중대한 정신적 외상의 병력이 있으며 가정에서 학대, 방치, 모욕이나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중대한 신체 및 정신 건강 치료를 거부당하면 이들이 겪는 정신적 외상이 악화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 취약한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는 뉴욕주 기관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